

# 전남도, AI 첨단농산업 조성 빨라진다... 쿠보사와 협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럽 순방 중 자동화·스마트팜 기술 등 협업 네덜란드 원예센터, 벤치마킹 모델



유럽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가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쿠보그룹(Kubo Group)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유럽을 순방 중인 가운데 선진 첨단농산업 전남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고 원예기업인 쿠보 그룹(Kubo Group)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쿠보 그룹의 피터 판 데르 크란 재무이사(CFO), 데니스 판 라이데 아시아·중동 총괄대표 등이 참석했다.

쿠보 그룹은 75년 역사를 가진 전

환경 첨단농산업 건축분야의 세계 최고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매년 200ha 규모의 반 밀폐형 첨단 온실(ULTRA-CLIMA)을 4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농축산업 생

산업 향상을 위해 필요한 쿠보그룹의 첨단온실과 농업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쿠보는 전남도에 양질의 스마트팜 시스템 기술 자문과 노하우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전남도는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시 첨단온실 구축에 필요한 기술 정보 교환과 상호 방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불리는 세계원예센터(WHC)를 시찰하고 관계자를 만나 농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순환농업,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 첨단스마트팜 단지인 남홀란드주에 위치한 세계원예센터는 2018년 3월 문을 연 후 스마트팜 농업

관련 비즈니스, 연구·실증·시연·교육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130개 기업, 40개 연구온실,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실리콘밸리에 비유되며, 원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행사나 정보공유의 중심지(허브)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혁신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계획하는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의 벤치마킹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김천시

###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억 돌파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두 달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해주고 2년간 3%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기준 대출 신청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규모인 200억원의 50%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김천(경북)=김상복 기자

진도군

### 4년 만의 '진도개 페스티벌'

전남 진도군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진도읍 동외리 진도개테마파크에서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만큼 진도견과 반려견이 함께 즐기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5일 개막 행사로는 사칙연산과 프리스타일 등 반려견 시범과 마술쇼, 버튼식 축포 등의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들간 진행되는 반려견 행사는 ▲어질리티와 달리기 등 진도견 도그 스포츠 ▲인명구조, 프리스타일 등 도그스포츠 대회다.

/진도(전남)=양수영 기자

사천시

###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사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출산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관내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출산지원금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6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80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공기관 취업 정보 제공 지역청년 채용기회 확대

대구경북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추진 16개 공공기관·대구은행 등 참여

대구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3년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 정보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게 돼 참가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채용상담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으로 이전

한 1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한국노년연구원도 참여해 지역인재들이 평소에 관심 높은 이들 기관의 채용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채용상담에서는 참가기관별 부스에서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채용설명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채용요강을 발표한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취업한 지역대학 선배의 성공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참가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채용되도록 공공기관과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2일 대전시청에서 사회 상처·갈등 치유, 국민통합 증진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전시

## 대전시,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나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추진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전지역협의회와 손잡고 대전시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나선다. 대덕특구 50주년 재창조사업 추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대전광역시는 2일 대전시청에서 사회 상처·갈등 치유, 국민통합 증진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협의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

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은다. 대전 지역 내 청년 취·창업 지원, 월세 지원, 청년주택 사업 등도 돕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대전시가 글로벌 과학 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대덕특구가 4차 산업시대에도 과학 수도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 '동네상권발전소'에 거제시 최종 선정

거제고현시장 리브랜딩 계획

거제시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초 지자체, 지역상인, 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 상권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상권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상권활성화사업의 예비사업으로써 2억원의 연구 기획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기획과제로서

정될 시 이번 사업과 연계되어 고현동 상권 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대상이 돼 5년간 최대 1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거제고현시장을 예비상권으로 지정해 섬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거제고현시장을 '솔티드 마켓'으로 리브랜딩하고 관광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새로운 로컬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거제섬도' 김은주 대표가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있어 고배를 마셨으나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지난 3월 재도전한 결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방향 제시

부산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함께 지역의 거시적인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부산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발표하는 '부산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부산 산업의 디지털화·친환경화 견인'을 앞으로 5년간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지·산·학 연계 디지털 전문 실무인재 육성 ▲과학기술 기반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4대 전략으로 삼고, 이에 맞춰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국가 투자전략의 11대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부산의 상황에 맞게 ▲디지털(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지식서비스) ▲생명·의료 ▲소재·나노·기계·제조 ▲해양·물류·수산·식품 ▲에너지·환경·재난을 5대 기술 분야로 재편성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